

“공공기관 2차 이전, 인구감소율·균형지표 반영해야”

광주·전남 ‘공공기관 총량제 적용’ 정부에 건의
호남권 지자체 영향력 높은 공공기관 유치에 힘 모아야
정부 가이드라인 작성·경제력 반영 이전지 선정 주장도

국가균형발전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정부가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 균형발전위원회 균형지표, 지방소멸위험지역 등의 지수를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의 전국 분포도,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 등도 포함시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지자체들 역시 지역 발전에 있어서 영향력이 높은 공공기관들이 호남권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향후 각 지역의 여건, 특징 등을 감안해 배치하는 수준 높은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시,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기존 이전 대책을 수정·보완해 유치 대상 기관을 재검토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총남에 12번째 새로운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자체들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광주시와 전남도가 유치 전략 구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광주·전남은 ‘공공기관 총량제 적용’을 정부에 건의중이다.
공공기관 1차 이전에 의해 광주·전남이 공동조성된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전력 등 16곳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호남권에는 정부 공공기관 362개 중 고작 29개(8.0%)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반해 충청권 84곳(23.2%), 영남권 74곳(20.4%) 등은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3개년 재정자립도 평균 등 균형발전지표, 경제력 분석 등을 반영해 ‘공공기관 이전 우선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권 인구는 1970년 697만명에서 2020년 571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8.0%(125만명)가 감소했으며, 2070년에는 401만명에 이를 전망으로 2020년 대비 향후 50년간 29.8%(171만명)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균형발전 핵심지표인 3개년 재정자립도 평균 역시 광주가 53.6%, 전남이 30.8%로, 전국 평균(5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20여개 규모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금융기관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은 지역경제에 영향력이 높고, 기존 국책사업, 대규모 프로젝트 등과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들을 선별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당초 광주는 35개, 전남 24개 기관을 유치할 방침을 세웠지만, 대상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광주시는 우선 문화예술, 인공지능, 에너지융복합, 전남은 농생명, 에너지, 정보통신, 해양수산기업 등에 국책은행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정부가 쇠락한 호남권의 여건을 감안,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에 입각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도록 광주·전남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에 이전 방식, 지역특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민하면서 광주·전남이 함께 논의하는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야산·농경지·들판... 소유하고픈 인간의 욕망



김은영의
‘그림 생각’

(322) 부동산



게인즈버러 작 ‘앤드루스 부부’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폭 올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우리 같은 서민들에겐 보유세가 남의 일이라 관심이 덜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집약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부동산 사태’로 접근하는 태세이다.
과문하기도 해서 먼발치서 보기에 부동산 문제는 시장기능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다보니 해법은 멀어져가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든다.
풍요를 추구하고 물질적 여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은 그림에서도 드러난다.
영국 출신의 토마스 게인즈버러(1727-1788)의 ‘앤드루스 부부’(1750년대 작)가 바로 그런 작품이다. 이 그림은 어느 부유한 귀족부부의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다.
이 그림은 기품 있는 초상화를 그리

는 화가로 유명했던 게인즈버러가 고향 친구인 로버트 앤드루와 부인 프란시스 카터의 부탁으로 완성한 결혼 기념 초상화로 초상화 못지않게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풍경 묘사가 더 핵심이다.
초상화의 배경에 그려진 풍경을 보면 야산과 농경지,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다.
추수가 끝난 후의 깨끗한 밭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멀리 뒤편으로 울타리를 친 후 그 안에 방목하고 있는 양들도 보인다.
앤드루 부부는 최신식 로코코풍의 화려한 옷을 입고 한껏 멋을 부리고 부자가 아니면 지닐 수 없는 장충 등의 소품을 통해 부유한 지주 계급임을 과시한다. 화폭 안에 펼쳐진 광대한 사유지도 그런 맥락이다.
앤드루 부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모습 뿐 아니라 그림의 대상 즉,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매일 확인하는 기쁨을 만끽했을 것이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문대통령, 박지원에 임명장...손자에게 ‘신퇴’ 꽃다발 건네

靑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두 분은 역사적 소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에 대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자, 가장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 갖춘 분”이라고, 이 장관에 대해서는 “추진력이 대단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박 원장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국정원의 후역사를 정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며 “문 대통령의 재임 중에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도 임명장을 주면서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수사체계 개편과정에서 국가가 가진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선 안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박 원장의 손자에게 꽃다발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나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사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는 청와대도

포함된다”며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냐”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 간 이면 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라면서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대선 100일전 후보 선출 검토

현행 180일은 너무 길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180일 전으로 규정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선거 전 100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너무 빨리 대권주자가 결정돼 야권의 공격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당 전당대회 준비위 핵심관계자는 29일 “지금처럼 6개월 전에 선출하게 되면 우리 당 후보가 공격당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후보 선출 기간을 이전보다 줄이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준위는 당헌·당규 분과 차원에서 논의해 의결이 모아지면 8·29 전당대회 때 채택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대로 확정되면 민주당은 2022년 3월 대선을 기준으로 2021년 9월이 아닌 11월 말에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BRO&TIPS

기름진
형 피부엔?
브로앤팁스 네버오일리 올인원

REAL TIPS FOR BRO
NEVER OILY
ALL IN ONE

- 전국 아리파움 매장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 브로앤팁스 공식홈페이지 | www.brontips.com • www.instagram.com/brontips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